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12월 1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수출입과 조영태 과장(2110-5331), 이디도 사무관(5335)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수출구조 변화와 시사점

► **수출대비 해외생산 비중은 '10년 51.4%로 '05년(24.6%) 대비 두배로 증가**

► **수출비중('01→'11, %) : 소비재(29.2→14.9), 자본재(41.6→48.7), 원자재(29.1→36.3)**

1.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수출 구조 변화

□ '90년대 이후 국내산업구조 고도화와 제조업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소비재 수출 비중은 둔화되고 자본재와 원자재가 우리 수출을 주도

◇ 원자재 : 생산의 원료가 되는 자재(철강 등 금속제품, 화학제품, 직물 등)
◇ 자본재 : 생산 기계나 원자재 등 생산 수단을 만들어 내는 제품(장비, 부품 등)
◇ 소비재 : 일상생활에서 생산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완제품(가전, 승용차 등)

○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 고도화와 해외생산기지로의 설비 및 부품 수출 증가*에 따라 자본재, 원자재 수출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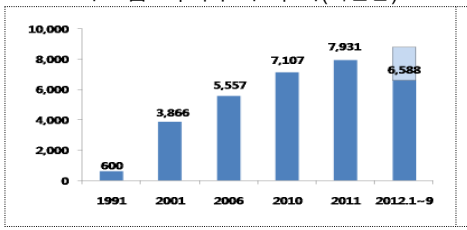
* 부품소재 수출액 : ('01) 619.8억불 → ('11) 2,553.0억불(10년간 4.1배 증가)

** 수출비중 추이('01→'11, %) : (자본재) 41.6→48.7 (원자재) 29.1→36.3 (소비재) 29.2→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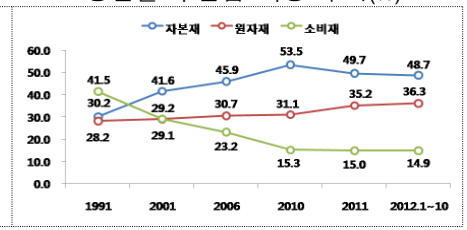
○ 가전, 의류, 신발 등 대표적인 소비재 품목들의 수출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면서 소비재 수출 비중은 지속 하락세

* 품목별 수출액('01→'11, 억불) : (가전) 96.9→133.3 (의류) 39.2→16.7 (신발) 7.0→4.6

< 제조업 해외투자 추이(백만불)>



< 성질별 수출입 비중 추이(%)>



2. 주요 지역별 분석

□ 지역별로도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로 활용되는 개도국의 경우 소비재 비중이 낮고 자본재 및 원자재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 중국과 ASEAN의 경우 기계·부품 등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고 소비재 수출 비중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지속 하락세 시현

- 對중국 수출은 일반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자본재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재 비중은 더욱 축소되고 자본재 비중 크게 성장

* 對중국 품목별 수출('01→'11, 억불) : (일반기계) 14.1 →126.0 (반도체) 3.7 → 157.8 (디스플레이) 0.2 → 202.9 (석유화학) 33.5 → 216.0

- 對ASEAN 수출은 일반기계 등 자본재 품목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철강, 석유제품 등 원자재가 약진하면서 수출비중 확대

* 對ASEAN 품목별 수출('01→'11, 억불) : (일반기계) 9.1 → 41.2 (철강) 9.1 → 82.4 (석유제품) 10.1 → 150.8 (석유화학) 10.3 → 49.5

○ 반면 미국·일본 등 선진시장의 경우 소비재 수출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ASEAN 등에 비해서는 높은 편

- 對미국 수출은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견실한 소비재 수출 비중을 유지

* 對미국 품목별 수출('01→'11, 억불) : (승용차) 58.8 → 86.3 (무선통신기기) 33.1 → 92.4 (가전) 20.5 → 18.9 (일반기계) 17.1 → 58.1 (반도체) 34.1 → 27.3

- 對일본 수출은 기계류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하다가 '11년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라 원자재 비중 확대

* 對일본 품목별 수출('01→'11, 억불) : (일반기계) 8.4 → 28.3 (석유제품) 31.1 → 86.0

< 주요 지역의 성질별 수출입 비중 추이(%)>

구분	중국				ASEAN			
	2001	2006	2011	2012	2001	2006	2011	2012
자본재	28.1	51.7	56.7	58.6	44.2	44.0	37.6	38.5
원자재	61.4	40.8	37.6	36.4	39.0	43.2	54.9	54.6
소비재	10.5	7.4	5.7	5.0	16.7	12.7	7.3	6.7

구분	미국				일본			
	2001	2006	2011	2012	2001	2006	2011	2012
자본재	35.8	35.8	46.5	44.3	34.6	44.2	29.9	31.1
원자재	14.9	23.9	23.7	25.2	38.0	42.0	57.0	54.3
소비재	49.3	40.2	29.7	30.2	27.3	13.7	13.0	14.6

3. 대표 품목별 분석

□ **(자동차)** 완성차 부문 해외투자 및 해외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부상

○ 완성차의 해외생산이 본격화된 '01년 이후 자동차 부품은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우리 수출을 견인

* 車 해외생산 비중(%) : ('01) 3.3 → ('11) 40.3 / 車부품 수출액(억불) : ('01) 22.2 → ('11) 230.8

- 자동차부품의 주요 수출국가는 미국, 중국, 인도, 체코 등 우리나라의 생산법인이 진출한 국가로 해외투자의 부품수출 유발효과가 뚜렷

* 車부품 국가별 수출순위('11년, 억불) : (1위: 미국) 50.2 (2위: 중국) 44.0 (3위: 러시아) 13.6 (4위: 인도) 15.5 (5위: 슬로바키아) 10.4 (6위: 체코) 8.4

○ 한편 해외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에 힘입어 완성차 수출은 꾸준히 증가

* 자동차 수출금액 : ('01) 132.2억불 → ('11) 453.1억불

□ **(IT 산업)** 휴대폰 등 해외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 국가에 대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부품 등 관련 자본재 수출은 확대되는 추세

○ 우리 IT 산업은 높은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상반기 다소 부진하였던 휴대폰 수출도 9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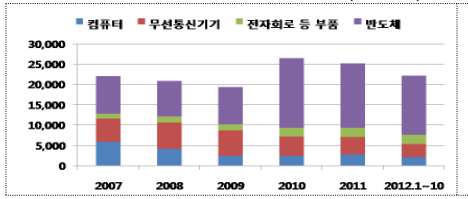
* 국내업체 휴대폰 시장점유율 : ('08) 25.3%, 세계 2위 → ('11) 27.5%, 세계 1위

** 휴대폰 수출증감률(%) : ('12.1)△39.4→(3)△31.2→(8)△26.6→(9)7.6→(10)18.1→(11)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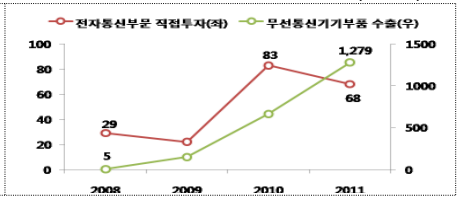
○ 한편 對중국 수출의 경우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전자회로, 반도체 등 수출 증가가 완제품 수출 감소를 보완하고 있으며,

- 최근 무선통신기기(휴대폰)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도 해외투자 급증에 따라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이 큰 폭 증가

< 對中 전자제품 품목별 수출(백만불) >



< 對베트남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백만불) >



□ **(섬유)** 중국, ASEAN 등지로의 생산기지 이전으로 섬유 완제품 수출은 감소세가 뚜렷하나 직물, 섬유원료 등 수출이 이를 보완

○ '90년대 이후 중국, ASEAN 등에 대한 섬유제품 제조업 해외투자 확대

* 섬유제품(의류 및 직물) 해외투자 금액('90~'11) : (중국) 23.8억불 (ASEAN) 19.0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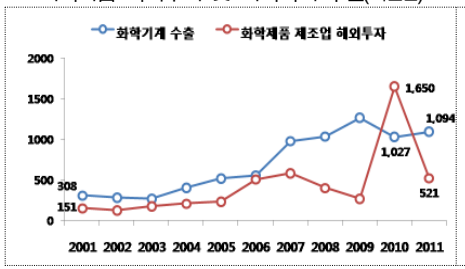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섬유제품의 수출은 급감하였으나 해외 생산기지에 대한 직물, 섬유원료, 섬유기계 등 원자재 및 설비 수출이 증가

* 품목별 수출액('90→'11, 억불) : (섬유제품) 88.9 → 30.3 (섬유원료) 3.3 → 14.3 (섬유사) 8.8 → 17.9 (직물) 46.7 → 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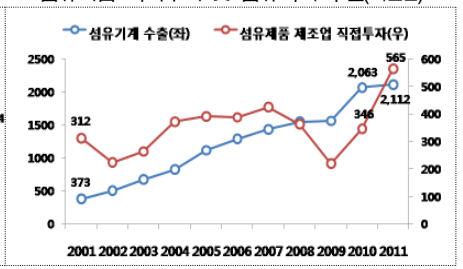
□ **(기계류)** 주요 산업별 해외투자 증가와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따라 부수된 기계류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화학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주요 제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관련 기계류 수출도 동반 증가

< 화학제품 해외투자 및 화학기계 수출(백만불) >



< 섬유제품 해외투자 및 섬유기계 수출(백만불) >



○ 최근 중동 등 신흥국에 대한 플랜트 수주 증가에 따른 관련 기자재 수출 증가도 기계류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

- 중동 지역에 대한 플랜트 수주가 '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對중동 기계류 수출도 크게 증가('11년 對중동 수출의 14.5%)

< 對중동 플랜트 수주 및 일반기계 수출 추이(백만불)>

구분	2004	2006	2008	2010	2011
플랜트 수주	3,293	8,969	20,031	38,122	24,664
일반기계 수출	1,061	1,652	3,657	3,219	4,777

* '12.10월 현재 對중동 일반기계 수출은 54.6억불(전년동기대비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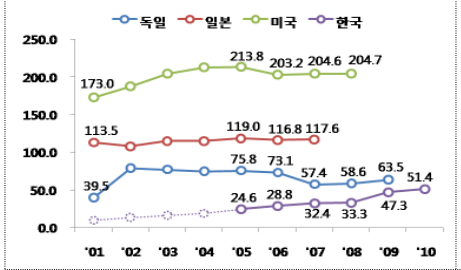
4. 해외투자의 수출효과 평가

□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해외생산 증가는 선진국에 비해 초기단계로 수출유발효과가 커서 총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은 적은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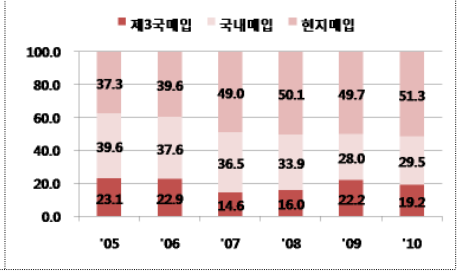
＊ 해외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는 ①수출유발 ②수출대체 ③수입전환 ④역수입 등으로 투자 초기에는 ①이, 시간이 지날수록 ②③④가 강해짐

○ 현재까지는 일부제품 제외하고 중간재 수출유발효과가 최종재 수출대체효과보다 커서 해외투자가 총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짐

< 수출대비 해외생산 비중 추이(%) >



< 제조업 해외법인 매입구조 변화(%)>



자료 : 수출입은행, OECD, 산업연구원

□ 향후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더욱 확대될 경우 수출유발효과 감소 및 수출대체효과 증가로 인한 수출동력 둔화 우려

○ 최근 해외자회사의 매입 중 자국내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자본재·원자재 수출유발효과의 둔화 우려

○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 대비 해외생산 비중은 지난 5년간('05~'10년) 2배 이상 급격히 확대되어 향후 최종재 수출대체효과 본격화 예상

□ 품목별로는 자동차, 기계류 등에서는 수출유발효과가 뚜렷한 반면 섬유, 일부 IT제품 등은 해외생산 확대에 따라 수출 감소가 나타남

○ 다만, 휴대폰 등은 해외생산 증가에 따른 수출대체효과로 상반기에 일부 감소하였으나, 9월이후 증가세가 지속

○ 자동차* 등 현재까지 수출대체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품목의 경우도 향후 해외생산의 본격화에 따라 수출 둔화 가능성 존재

＊ '12년 자동차 해외생산은 14.6%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1.5% 증가에 그칠 전망(대수 기준)

5. 시사점

□ 현지 진출 확대 및 비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 및 생산은 선진국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향후 최종 소비재 수출비중은 더욱 축소되고 자본재, 원자재가 총수출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

○ 다만 향후 수출대체효과의 본격화에 따라 수출 동력 위축이 우려되는 바, 해외투자와 수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전략이 긴요

□ 생산기지로 활용되는 신흥국(ASEAN, 중동, 남미) 및 기존 주요 수출시장(미국, EU, 중국 등)별 차별화된 해외진출 전략 필요

○ 미국, EU, 중국 등 기존 주력 수출시장에 대해서는 수출강소기업 육성과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통해 최종 소비재 수출 확대

- 해외마케팅, 무역금융 지원 확대 등 전후방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향후 수출 확대의 주역으로 육성

- 대형 유통망 연계 및 문화한류 활용 마케팅 등 내수 소비재 시장을 겨냥한 수출 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 ASEAN, 중동, 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수출·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을 연계한 글로벌 진출전략 설계 필요

- 수출유발효과가 높은 플랜트 수주 등을 확대하고 해외생산기지와 국내 기업 간 유기적인 분업구조를 구축하여 국내 수출기반 유지

□ 품목별로도 수출대체효과가 본격화된 소비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 지속 성장 달성

○ 섬유, 신발, 가전 등 해외 생산이 많은 소비재 산업은 국내에서 첨단소재 개발,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화

○ 자동차, 기계 등 국내 생산기지 유지 중인 산업은 외국인 투자 유치, R&D 확대 등을 통해 핵심 부품·소재 및 장비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